

“아시아 판화 한자리에서 만나요”

고판화박물관 개관 10주년 ‘복받는 그림 특별전’
2월 6일 ~ 6월 30일... 숲속 판화 학교도

새해를 맞으면 많은 이들이 새롭게 마음을 다진다. 질병은 물러가고 악재는 사라지며 모두가 평화롭고 순탄하고 원만한 기를 바란다. 이런 염원을 담은 전시가 있어 눈길을 끈다.
개관 10주년을 맞은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이 ‘복받는 그림 특별전-아시아 판화의 세계’가 6월 30일까지 열린다. ‘복받는 그림’ 즉 세화라고 칭하는 총 100여 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33 관음성지 순례도 목판과 인출판화, 백살소멸 만복부 목판과 판화, 티베트 채색 타르초, 성불도 목판본 놀이판 등 불교 관련 작품도 있어 눈길을 끈다.

기(重刊記) 등에 기록되어 있다. 작품은 조선 후기 것으로 추정된다.

‘백살소멸만복부’는 도교에서 쓰는 기호 부적들로 인간의 모든 살을 없애고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판화다. 여기에 ‘佛’자를 중간에 새긴 것은 흥미롭다. 이에 대해 한 관장은 “결국 모든 것이 불교로 회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편견 없이 모든 문화를 받아들이고 불교로 회향하는 통불교를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깃발을 꽂아 놓고 소원을 말하면 바람이 하늘의 신에게 올라가 그 소원을 받아 내려온다는 의미를 지닌 티베트 깃발 ‘타르초’도 만날 수 있다.

이밖에도 한국의 부귀다남 수복강령 보관(문양판)을 비롯해, 전도교에서 1923년

아시아 ‘세화 판화’ 100여 점

성불도놀이·타르초·日33관음도 등

개해년 신년에 사용됐던 세화 2점과 관련 유물 3점이 최초 공개된다. 또한 신년에 사용되었던 목판화 유품들로 한글 병행본도 주목할 만하다.

이 밖에도 호작도 판화와 삼재부적, 재신과 관련된 유물들과 신년 세시 풍속 작품 10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한 관장은 “중국에서 세화는 당시대 이후 송·명시대, 청나라 등을 거쳐 공산당 정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국 문화의 원형 중 하나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가 재신이며, 집안에 재물이 많이 들어와 한 해가 풍요롭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양한 소재로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고판화박물관은 명주사 템플스테이와 연계해 세화 판화 만들기 숲속판화학교도 함께 진행한다. (033)761-7885

정혜숙 기자 bwjsh@hyunbul.com



티베트 타르초



백살소멸 만복부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연화화생(蓮花化生)→만병화생(滿瓶化生) ㉔

직지사의 만병화생

용이 오색영기·물 뿜어 ‘절’ 생겨

만병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동근 향아리만 떠올릴지 모른다. 그러면 왜 만병(滿瓶)이라고 이름 지었을까. 나도 처음에는 의아해 하여 만호(滿壺)라고 불러야 옳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그런데 향아리 호(壺)라고 알고 있는 글자를 옥편에서 찾아보면 ‘병 壺’라고 하여 향아리를 병으로 인식한다. 병(壺)이라는 글자를 파자(破字)하면 병의 좌측 글자는 ‘아우를 병(井)’이다. 따라서 그릇 전체를 아우르는 성격의 글자임을 알 수 있다. 우측의 ‘瓦’는 그릇을 만들 때 진흙을 쓰기 때문이다. 나는 일본 대덕사 소장 수월관음도에 대한 논문을 썼을 때 그릇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었다. 동근 향아리뿐만 아니라 정병이나 승반이나 모든 도자기는 만병이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음을 알았던 것이다. 이것은 세계 도자사(世界陶器史)연구에 큰 전환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대웅전 불단에 만물 화생 도상 거둬

직지사에 가면 대웅전에 거대한 불단(佛壇)이 있다.(그림 ①-1, 그림 ①-2)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불단의 형식인데 그 이전 시대와 달리 불단이 직육면체로 매우 크다.

윗면은 매우 넓어서 흔히 삼존불일 경우 불상 세구를 모시고도 여유가 많아 향로, 꽃병(만병), 촛대, 쌀 봉지 등 잔뜩 올려놓고 있다. 그리고 불단 앞면과 양 측면에는 여러 가지 무늬로 장식하고 있다. 그 불단의 전체 상징은 나의 이론인 ‘영기화생론’으로 완벽히 풀어낼 수 있으나, 후일을 기약한다. 사찰에 여러 번 다녔어도 불단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불단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던 중 직지사 불단에서 나는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였다.

불단의 처음 부분 가운데 단에 푸른색의 정병 모양이 있는데 주입구(注入口)로부터 만병 안에 들어 있었던 용이 겨우 빠져 나오고 있지만 탄력성이 있다.(그림 ②-1, 그림 ③-1)

용의 다리에는 빨간 색의 영기문이 발산하고 있다. 정병에서 용이 나온다는 것은 ‘한없는 영화된 물’이 솟구쳐 나온다는 것을 뜻한다. 한 편 정병의 위 부분의 물이 나오는 길게 높은 대롱 같은 주출구(注出口)로 부터는 엄청난 오색 영기문이 뭉개뭉개 힘차게 발산하다가 두 갈래로 갈라져 좌우로 뻗쳐 나간다. 한 갈래는 그 긴 불단의 왼쪽 끝까지 뻗쳐나간다. 그 옆에는 큰 잠자리와 나방이와 흰 연꽃 같은 것이 있다. 영기문에서 생명이 화생하는

광경이다. 두 사진은 확대하여도 잘 파악이 안 되므로 채색분석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그림 ④-1)

만병의 용을 통해 직지사 ‘화생’

흥미롭게도 그 긴 불단의 왼쪽 끝을 보면, 오른쪽 시작점인 정병에서 나온 용이 다시 오색 영기문을 뿜어내며 나타난다.(그림 ②-2, 그림 ③-2)
채색분석해보면 용의 입에서 보주가 나오고 좌우에 빨간 작은 구름모양 영기문이 있다. 정병에서 오색 구름모양 영기문이 솟구쳐 나오듯이 이번에는 용의 몸에서 같은 모양의 오색 영기문이 뻗쳐서 오른쪽을 향하여 뻗쳐 나간다. 그러므로 이 중간 단에는 오른쪽의 정병과 왼쪽의 용이라는 두 축이 있다.

그리고 용으로부터 무량한 물이 솟구쳐 나오는데, 그것을 중첩된 육각형 바위 모양으로 나타냈다. 육각은 물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정병에서 용이 나오고 용의 입에서 보주와 무량한 물(수많은 암석 같은



그림 ①-1 불단의 오른쪽 처음 부분



그림 ①-2 불단의 왼쪽 마지막 부분



그림 ②-1 불단의 처음 부분의 중단부



그림 ②-2 불단 마지막 부분의 중단부



그림 ③-1 정병에서 나오는 용과 영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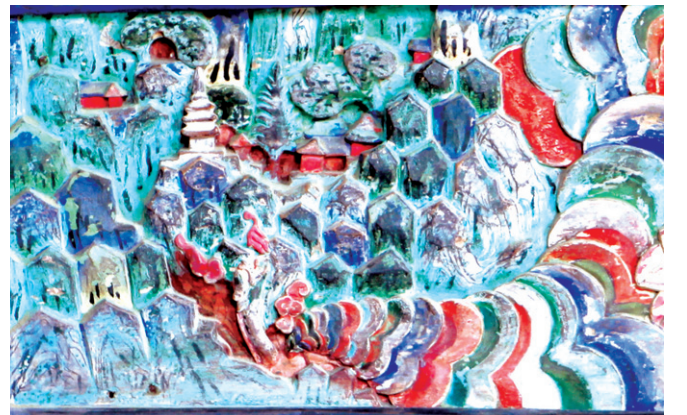


그림 ③-2 용에서 발산하는 영기문과 육각수문에서 직지사가 영기화생하는 광경



그림 ④-1 (그림 ③-1)을 채색분석한 것



그림 ④-2 (그림 ③-2)을 채색분석한 것

육각수문(六角水文)이 나와서 여래가 봉안된 사찰이 화생하는 맥락을 명확하게 짚어볼 수 있다.(그림 ④-2)

이처럼 용, 영기문, 육각수를 나타낸 모양 등에서 마침내 사원이라는 절대적 공간, 즉 우주의 축소가 화생한다. 탑을 중심으로 좌우에 두 법당이 자리 잡고 있고

며 큰 나무들이 있다. 이 절은 무엇일까? 나는 이 절이 바로 직지사(直指寺)라고 생각한다. 사원이라면 직지사 대웅전의 불단에 나타난 것은 직지사일 수밖에 없다. 아, 직지사의 만병화생을 확인하는 순간, 저 인도의 카를리 석굴사원의 기둥들이 만병에서 화생하는 도상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며, 역시 신전(神殿)의 만병화생의 도상의 역사는 길고도 길음을 알았다.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스님과 함께 떠나는 하나투어(VIP여행사) 중국성지순례 6일

부산에서 3월 29일 출발 : 북경 | 성도 | 아미산 | 낙산

부산 → 북경 → 성도(1박) → 낙산 → 아미산(2박) → 성도 → 북경(2박) → 부산

불자라면 ~ 평생 한번은 꼭 가봐야 하는 성지순례

세계 최대 마애불상 낙산대불!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 성도의 최고 고찰 문수원! 만리장성, 천안문, 자금성 관광까지...

주요일정 (전일정 현지최고호텔 및 전용버스)

1일 (3/29, 금)	북경, 성도
2일 (3/30, 토)	낙산 : 조각사, 대자사, 낙산대불, 대불선원
3일 (3/31, 일)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 만년사, 금정사, 복호사
4일 (4/ 1, 월)	성도 문수원, 아미산 보국사, 소열사, 금리시장, 북경
5일 (4/ 2, 화)	만리장성, 천안문, 자금성, 이화원
6일 (4/ 3, 수)	북경, 부산

여행경비 : 1,370,000원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나투어)

전화주시면 상세일정 안내 및 세부일정표 보내드립니다.

여권사본팩스, 여행경비 입금 FAX : 055)867-8009

접수 마감 : 2월 28일까지

문의 및 접수 : 055)867-2259 / 진주 하나투어 VIP여행사 055)741-9999

후원 :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사찰 연등 및 전선(범등용) 초심자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신제품 (특허제품)

고추구 12E 3구 인자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 발판사다리

DWKS-108A DWKS-108B

DWKS-3000A DWKS-3000B

A형 B형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범등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의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 인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영사용) 탈들이 방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 이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 노랑, 빨강

▶ 방생, 탈들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